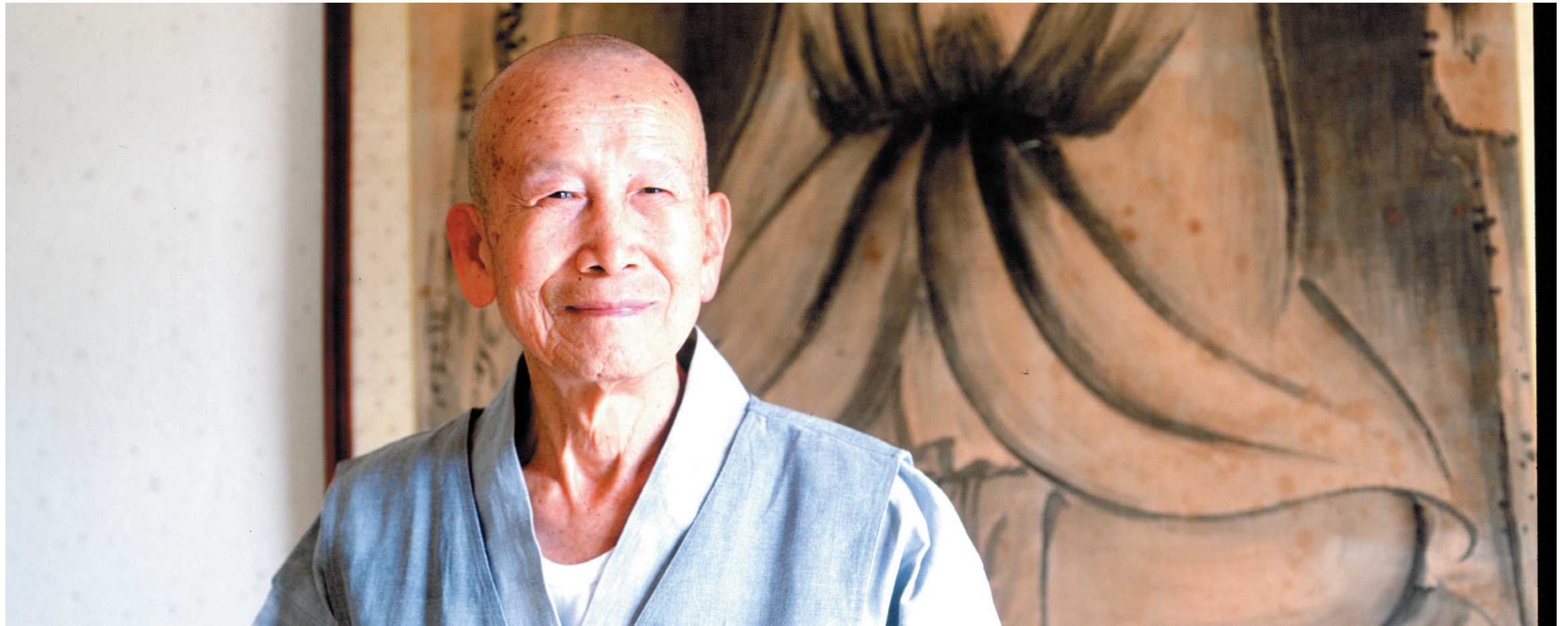




서용 스님 유묵 '일일시호일원상'



서용 스님의 '참사람운동'은 수행을 통한 개인 성품 발현으로 사회 갈등과 투쟁을 자연스럽게 없애는 평화·수행결사였다.

서용 스님 연보

- 1912년 10월 10일(음) 충남 논산 출생
- 1932년(21세) 백양사로 출가, 민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35년(24세) 중앙불교전문학교 졸업, 백양사 강원 외전 강사
- 1937년(26세) 한암 스님 모시고 상원사 선원에서 탄허 고암 월하 스님과 2년 안거
- 1939년(28세) 일본 임제대학교 입학
- 1941년(30세) 일본 임제대학교 졸업, 4월 일본 묘심사 선원 입실, 3년 성만
- 1944년(33세) 귀국, 백양사 선원 안거
- 1952년(41세) 부산 선암사 선원 안거, 향곡, 자운, 석암, 홍경 스님들이 함께 정진
- 1962년(51세) 대흥사 주지, 동국대 대학선원장
- 1964년(53세) 천축사 무문관 조실
- 1967년(56세) 백양사 쌍계루 아래 돌다리 물살 보고 화철대오, 오도승을 읊음
- 1969년(58세) 동화사 선원 조실
- 1971년(60세) 문경 봉암사 선원 조실
- 1974년(63세) 조계종 5대 종정 취임
- 1989년(78세) 백양사 운문선원 조실
- 1996년(85세)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참사람 결사운동 시작
- 1998년(87세) 1회 국제무차선회 개최
- 2000년(89세) 2회 국제무차선회 개최
- 2003년 12월 13일 세수 92세, 일기로 결가부좌 한채 백양사에서 입적

서용 스님 '참사람운동' 다시 펼친다

탄신 100년 백양사서 결사법회, 운동본부 결성

전남 장성 백양사가 '서용 스님 탄신 100주년 참사람 결사법회'를 열고 참사람 운동을 다시 펼친다.

11월 23일 백양사에서 열린 참사람 결사법회에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 등 원로의원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종회의장 향적 스님을 비롯해 교구분사 주지 등 스님 300여 명과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사법회에서는 참사람운동본부 발대식과 함께 법회에 맞춰 서용 스님의 '백암록' 발간 봉정식이 진행됐다. 또 법회 이후 부도 헌다례도 함께 진행됐다.

조계종 5대 종정을 지낸 서용 스님은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으로 후학을 지도하는 등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한 당대 선승이다. 봉암사 백양사 등 제방선원에서 평생 수행자들을 지도했으며 백양사 방장으로 재

임 시 무차선회와 한국선국제학술대회를 열고 한국의 간화선을 세계학자들이 연구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날 전제 스님은 "활구참선(活句參禪)으로 일천성인(一千聖人)의 정역상일구(頂額上一句)를 투과해 활발발지(活發發地)를 얻은 뒤로는, 남자를 제정함에 있어 진리의 살 활검(殺活劍)을 자재하게 쓰시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며, 기(機)와 용(用)을 가지런히 써서 인천(人天)의 안목(眼目)을 열어가시었다"고 법어를 내렸다.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서용 스님은 철심석장(鐵心石腸)의 장부로서 수행에 있어서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철저한 정진을 보이신 분"이라며 "불교정화운동 시 청정 수행가풍을 되살리는데 앞장서신 일이나, 천축사 무문관, 동화사, 봉암사, 백양사 선

원의 조실을 역임하시며 수선남자들의 참선수행을 지도하신 일 등을 분반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현재 종단의 자성과 쇄신의 결사 정신도 서용 스님의 참사람결사 정신과 다르지 않기에 실천수행해 불교미래를 밝히도록 매진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문도대표로 지신 스님은 "백양사 문도들은 스님의 숭고한 참 뜻을 받들어 조사선의 전통을 진작시키기 위해 참사람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세워 나갈 것"이라며 "수좌스님들이 마음놓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눈 푸른 남자들을 계속하여 배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람정신'은 서용 스님이 생전 후학들에게 가르쳤던 것으로 1994년 참사람결사문 발표 등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참사람정신은 사람 개개인이 지닌 본래성품을 발견하면 사바세계의 갈등과 투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모든 생명이 서로

존중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서용 스님의 참사람운동은 장성 백양사 뿐만 아니라 서울 상도선원, 해남 미황사를 비롯한 각지에서 '참사람의 향기' 전시전, 참사람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탄신 100주년 기념 참사람운동은 기존 참사람운동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사무국을 비롯한 본부 구성과 시민프로그램 진행, 후원회 조직 등 장기계획 마련 방안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15일부터 31일까지 백양사 우화루에서는 서용 스님의 사진과 유품을 전시하는 '참사람의 향기' 전시전도 개최됐다.

전시전은 열반 10주년인 2013년 조계사 등 서울에서도 열린다. 또 운동본부 내에 연구소를 만들어 서용 스님의 가치와 철학을 연구하고, 각종 학술세미나와 법회도 열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노덕현 기자

"참사람 정신으로 백양사 다시 설 것"

장성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정신수행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갖출 행복한 성품을 찾는 서용 스님의 참사람 운동을 다시금 펼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백양사가 바로서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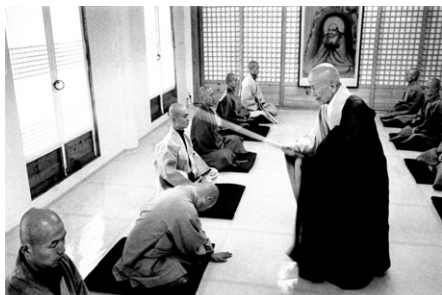
결사법회를 앞두고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서용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이 주창한 '참사람운동'을 다시 한번 주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그동안 백양사는 불미스런 일들로 인해 위상이 실추되고 침체일로를 걸어왔다"며 "'제자들이 먼저 숭선수범해 정진하는 한편 스님의 울골은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참사람운동은 향후 신도 차원의 봉사운동과 구호운동 등으로도 전개된다. 진우 스님은 "참사람운동의 영역은 봉사, 교육 등 다양하다"며 "참사람운동을 통해 백양사가 바로서며 더 나아가 한국불교계에 신선한 불교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제무차선회서 학자들과의 담론



고불총림 방장으로 지도하는 서용 스님



성철, 월산, 향곡 스님과 함께 대화하는 서용 스님



사진·유품 전시의 서용 스님 족비, 엄주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화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격하고 있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통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